



‘아시아 문화원류’...캄보디아 바이은 사원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앙코르와트가 힌두교 건축양식을 대표한다면 자이0버르만 7세가 건축한 바이은 사원은 불교 건축양식을 대표한다. 씨엘림에 위치한 바이은 사원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사면상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광주일보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취재진은 창사 61주년을 맞아 인도와 중국 고문화권의 교류적인 인도차이나반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문화원형을 탐사했다. ▶관련기사 14·15면 /씨엘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제언 ▶시리즈 3면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설립된 ‘문화의 집’도 정착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지자체·시민사회 등 도시 전체가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유럽에서 ‘문화의 등대’로 통하는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을 이끌고 있는 베른트 쉐러 총감독은 최근 광주를 방문,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는

물론 도시의 체질을 문화적인 토양으로 바꾸는 것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내년으로 10년째 접어들지만, 광주의 인적·물적 문화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시민들은 문화의 소비자에 머물고 있을 뿐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고, 예방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도 없다.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개관을 앞

두고 있음에도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등 운영프로그램)는 윤곽을 드러내자마자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물적 인프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도시라는 게 무색할 정도. 1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은 광주 문화예술회관 1곳 뿐이고,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은 전국 하위권이다.

도시의 열악한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총장모, 금남로 등 도심의 무질서한 상가간판은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홍물’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

심 비좁은 보도를 차지한 고압의 변압기는 무려 3326개에 달해 미관은 차치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다.

지자체 행정은 광주 문화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광주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은 ‘공공조직’이 됐고, 광주시는 “끊임없는 간섭과 간여로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억누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실종된 문화의식을 드러내는 미술품 훼손과 파과 현상도 여전히 ‘공공 공연관람’ 문화는 공연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비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광주는 “왜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이고, 문화수도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광주일보는 창사 61주년을 맞아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런 비문화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광주는 “왜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이고, 문화수도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광주일보는 창사 61주년을 맞아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사 특집 지면 안내

순천만정원박람회 오늘 개막식.....2	대담-호남언론 길을 묻다.....9
내년 6·4 지방선거 누가 뛰나.....4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14·15
호남 정치권 요동치나.....5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1’.....18·19
광주일보가 걸어온 길.....8	시리즈-‘하이! 시니어’.....21

알림



회갑을 넘어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또 한번 새로워집니다

3대 공익사업 전개...새 기획특집·지면쇄신

정확한 보도, 균형잡힌 논평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은 광주일보가 오는 20일로 창사 61주년을 맞습니다. 본보는 1952년 옛 전남일보로 출발해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꾼 이래 한결같이 전통과 권위의 호남 제일 종합일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한해 광주일보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공익사업을 전개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획특집과 지면 쇄신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 아시아에 광주 인술(仁術) 심는 ‘광주 진료소’ 개설

(사)희망나무를 비롯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5단체와 함께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국가에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가칭)를 개설합니다. 1호 진료소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타케오주에 건물을 신축해 오는 7~8월께 문을 엽니다. 미안마 등에 2, 3호 진료소도 계획중입니다. 광주진료소는 치료의 공간이자 다문화시대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 영·호남 화합과 소통, 상생발전 여는 ‘달빛 축제’

영·호남 대표 도시인 광주시(빛고을)와 대구시(달구벌)는 민선 5기 이후 남부권 공동 발전프로젝트인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일보는 양 지역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축제’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매치와 달빛동맹 선포식, 달빛음악회 등으로 짜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서갈등 해소와 문화 교류,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 국립공원 무등산 포럼 개최·무등산 지키미상 시상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무등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광주시산악연맹·무등산보훈단체협의회와 함께 ‘무등산 포럼’을 분기별로 열어 자연생태 보전 및 명품 국립공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무등산 지키미상’을 제정·시상함으로써 시민참여 의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시작된 기획특집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연재를 통해 무등산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들여다보고, 선진국의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해 무등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 국내외 기획물 등 다양한 콘텐츠...지면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아시아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아시아 각국의 문화원형을 탐사하는 대기획시리즈 ‘아시아문화원류를 찾아서’ 제4부 캄보디아편이 창사특집으로 시작됩니다. 우수항공특화물러스터 조성 추진되는 고흥이 동북아 우수항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고흥우주시대’ 기획시리즈도 준비합니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정보, 시·구정 소식 등을 담은 ‘시티&라이프’와 고령화 추세 속에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동반자가 될 ‘하이! 시니어’, 보현왕·관매왕 등 경제 각 분야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로부터 비결을 들어보는 ‘내가 최고’, 전남 우수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전국 1등 지역 명품’이 신설됩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한 생방송 소통과 읽을거리 보장을 위해 ‘대학생 칼럼’과 ‘성 칼럼’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TV편의 외국어 코너를 폐지하고 방송·연예 소식을 강화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

자연을... 생명을...
아름다움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KJB 광주은행

2012 다산금융상 수상
보진복지부

2012 일과 가정의 양립 공로
CEO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2 가족친화경영대상
저출산해소부문 대상 수상
여성가족부

2012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2011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부문 2년 연속 대상

2012대한민국 금융대상 수상
금공대상